

보도 일시	2022. 1. 26.(수) 조간 2022. 1. 25.(화) 11:00	배포 일시	2022. 1. 25.(화) 06:00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항만운영과	책임자	과 장 정규삼 (044-200-5770)
		담당자	서기관 최문건 (044-200-5771)

설 연휴에도 항만은 돌아간다. 수출입 물류 지원 이상무 - 해수부, 설 연휴 전국 무역항 ‘항만운영 특별대책’ 운영-

해양수산부(장관 문성혁)는 이번 설 연휴(1.29(토)~2.2(수))에도 항만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 별로 ‘항만운영 특별대책’을 운영한다.

우선, 설 연휴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경우, 화주나 선주가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·출입할 수 있다. 또한, 연휴 기간 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,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구축한다.

더불어, 선박이 원활하게 입·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‘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(PORT-MIS)’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,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관리인력도 24시간 상시 대기하도록 할 예정이다.

*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

예선업체*와 도선사**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하여 연휴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, 선박연료공급업, 항만용역업, 선용품 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, 미리 요청이 있을 경우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
* 선박이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선박 운영 업체

**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

또한, 해양수산부는 설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,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여 항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.

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“설 연휴에도 수출입물류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,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항만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- 각 지방해양수산청(11개*) 누리집: 해양수산부 누리집(www.mof.go.kr)에서도 각 기관으로 연결 가능

- 부산, 인천, 여수, 마산, 동해, 군산, 목포, 포항, 평택, 울산, 대산지방해양수산

부산	www.portbusan.go.kr	포항	pohang.mof.go.kr
인천	incheon.mof.go.kr	평택	pyeongtaek.mof.go.kr
여수	yeosu.mof.go.kr	울산	ulsan.mof.go.kr
마산	masan.mof.go.kr	대산	daesan.mof.go.kr
동해	donghae.mof.go.kr	군산	gunsan.mof.go.kr
목포	mokpo.mof.go.kr		

- 항만공사 누리집: 부산(www.busanpa.com), 인천(www.icpa.or.kr), 울산(www.upa.or.kr), 여수광양(www.ygpa.or.kr)



